

# 불교대학을 찾아서

## ⑥ 동방불교대학

서울 성북동 태고종 중앙불교회관. 하얀 벽을 입은 스님이 춤을 춘다. 징, 나팔 소리에 맞춰 세상 모든 번뇌를 끊으려 한다. 원을 그리다 깨트리고, 다시 원을 그리며 스스로 원이 된다. 회관 내 다른 공간. 세상 만물이 정지한 듯한 고요 속에 붓 놀리는 소리만 살아있다. 불화 그리는 이의 얼굴은 그림 속의 그것과 닮은 듯하다.

자비, 전법, 도생'이 건학이념인 동방 불교대학(이하 동방대, 학장 정태혁)은 전문 포교사 양성을 위해 1982년 서울 중구 동에서 '불교 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이듬해 동방대로 개명된 후, 1985년 현 성북동으로 교사를 이전했다. 처음에는 불교학과만 개설했다. 1990년 법학과와 기속사를, 1991년에는 불교미술과를 신설했다.

불교학과에서는 불교신학론, 태고사상 등의 공통과목 외 불교의식, 유식학, 포교론 등을 배운다. 법학과에서는 중요무형 문화재 제 50호인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에게 불교의식론과 상주공공을 이수 받는다. 또 불교미술과에서는 경신화과(서울 경기 지역의 불화풍, 강한 선과 화려한 색으로 생동감을 표현한다)의 맥을 이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만봉 스님의 법제자로부터 단청과 불화를 전수받는다.

또 비가 옵니다. 멀리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창 밖 가득 사랑 같은 꽃을 떨구던 석류나무 잎새에 비 듣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치는 청중들의 박수처럼 지루하게 들려옵니다.

올해 네팔의 우기는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빠꾸기 우는 소리는 전처럼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빠꾸기들은 비를 피해 설산 가까이 날아가 울고 있을 겁니다. 재작년 우기에는 설산과 설산 사이의 드높은 고개 토룡라 밑에서 그 높을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말라야에 우기가 올 따지면 카트만두 변두리에 찾아와 울다가는 빠꾸기들에게 어느 새 정이 들었나 봅니다. 어제는 빠꾸기 우는 설산 밑까지 긴 도보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설산 밑에서 듣는 빠꾸기 울음소리는 카트만두에서 듣는 빠꾸기 울음소리와 많이 다릅니다. 설산 밑에서 빠꾸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납니다. 빠꾸기 우는 소리

동방대는 태고종립 대학답게 법과와 불화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의 맥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가운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녹아들어, 졸업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도 별무리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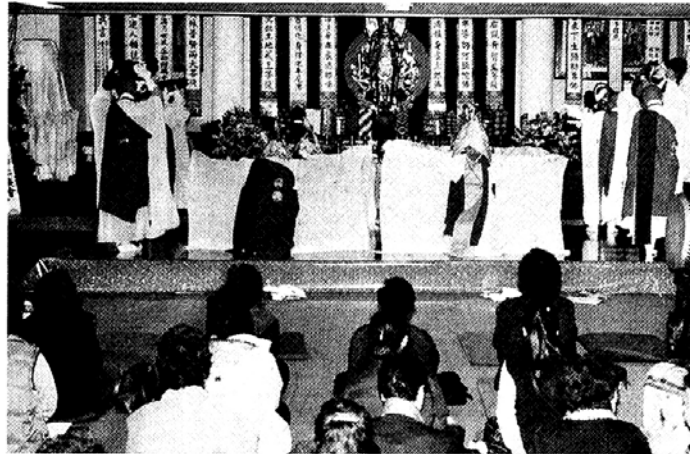
특히 법과과의 경우 졸업을 하면 영산재보존회에서 이수증을 수여하여, 졸업생들로 하여금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는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동방대의 학사편리는 엄격하다. 재학생들은 학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며,

### 태고종 종립대...건학이념 자비·전법·도생 불교학과로 시작, 법과·불교미술 증설 한국불교 전통의 맥 잇는다는 긍지로 면학

주 5일 수업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또한 매일 1박 2일은 발우공양 등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동방대의 또 다른 특징은 재학생 중 승가와 재가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점이다. 종립 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재학생과 졸업생이 같은 종도라는 소속감으로 강한 유대감도 보여주고 있다. 그 예가 각



◀졸업과 동시에 영산재 보존회 이수증도 수여받는 법과과는 동방대의 대표학과다. 사진은 졸업시연회에서 법과과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는 모습.

종 졸업생들의 다양한 장학금 기탁이다.

동방대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이운산 총무원장 취임 후 태고종은 선 교육 후 득도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먼저 동방대에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득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태고종은 이 불사를 위해 향후 2년간 합동득도

제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개교한 지 20여년. 교수들의 한 획, 한 획까지 세심한 지도로 정평난 대학. 법과와 불화의 요람 동방불교대학.

정태혁 학장은 "현재 동방대는 한국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교대학원 중심 대학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학부·대학원 마친후 법문가요로 포교

#### 6기 졸업생 법만스님



법만스님(서울 법만사 주지, 사진은 동방대 불교학과에서 학부(6기)와 대학원까지 마쳤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법문을 리듬과 멜로디라는 옷을 입혀 '법문가요'라는 장르를 개척한 스님은 대중포교의 원형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동방대에서의 배움의 마음이 포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불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학사편리를 하는 동방대에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었음지라도, 비록 번번이 실패하는 인내였음지라도, 또한 번번이 실패하는 용서였음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 볼 아무런 의욕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빠꾸기가 찾아와 울었던 겁니다.

어느 천 년에 이미 사라진 옛날 사투리로 빠꾸 빠꾸 울다 간 그 빠꾸기가 오늘 이 빗속 어디선가 또다시 울고 있습니다. 저놈의 빠꾸기.

저는 제 골방에 누워서 진중일 비 오는 골목을 벗어나 빠꾸기 우는 능선에 올라서는 꿈을 꾸다. 태양이 빛나는 푸른 창공 아래서, 그리고 새하얀 문개 구름 아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보듬어 안는 꿈을 꾸다.

향해 내려오노라면 나는 왜 내려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눈물이 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겠더군요. 정말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만 내던군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사랑해

### 시인 김홍성의

#### 네 팔 사 는 이야기

#### <5> 빠꾸기

### 구슬피 우는 설산 빠꾸기 생각하며 주어진 삶 다시한번 보듬어 보는 꿈들

는 차마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아주 떠날 수 없는 속세에서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공을 향해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빠꾸기 우는 소리를 듣고 저자거리를



##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경블린 외국인센터' 찾는 외국인노동자들

### 고통 덜어줄 '도움' 절실

외국인노동자 40만 명 시대. '불법체류자'라는 명에 이들의 절대다수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전형적인 도농도시, 경기도 김포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김포 지역 내 5천 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인권문화센터를 찾은 옛날 얼굴의 원뎨하이 씨(25). 팔려나간 손가락만 물끄러미 내려 보고 있었다. '코리아' 이라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은 여러

익게 씨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속죄는 것은 비단 '산업재해'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다.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파키스탄인 무스타파(45) 씨는 아직까지 9개월 치 임금 9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 마닉(28)과 칼람(29) 씨, 이들 또한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체불임금 5백만원을 고스란히 페일 지경이다. 참다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 임금 지급 명령 관정을 받았지만, 고용주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당국에 신고당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려운 형편에 대다수가 컨테이너 박스, 창고를 개조한 집, 심지어 버려진 빈집에까지 들어가 산다. 사정이 조금 낫다 싶은 외국인노동자들은 15~20만원 정도의 사물셋방에서 사는 정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정진우 실장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절실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유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거환경 열악·산재·임금체불 수개월

#### "중국·몽골·영어 자원봉사자 있었으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경블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정진우 실장이 베트남인 원뎨하이 씨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손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 드림'을 꿈꾸며, 2년 전 한국에 찾아온 젊은이. 그러나 지난 4월 인천 서구 공업사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셋째, 넷째, 다섯째 마디가 잘려나갔다. 기계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당한 갑작스런 사고, 답답한 마음에 인권문화센터를 방문했다. 경기 김포시 마송 지하 단칸 셋방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몽골인 잉케(29) 씨. 그 역시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컵 공장

에서 오른손 손가락 세 개가 잘렸다.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만에 사물기계를 다루다보니 이렇게 됐다. 다행히 산재보상 1천만원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손만 쳐다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권문화센터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산업재해, 질병, 체불임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 고용주의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권상담, 의료기관 알선,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금이 전적을 의지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무엇보다도 중국어, 몽골어, 영어 등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포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산업재해, 질병, 체불임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 고용주의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인권상담, 의료기관 알선,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금이 전적을 의지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무엇보다도 중국어, 몽골어, 영어 등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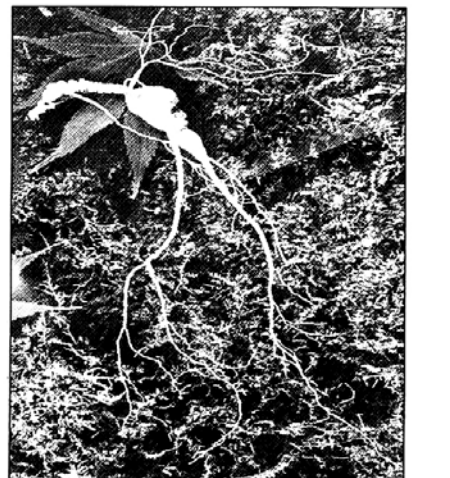
문의: 031-997-2301  
후원 계좌: 조흥은행 877-06-008223(예금주:외국인노동자센터)

김포=김철우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본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救의 偉功으로 廣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치 부담으로 미처 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賜顧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체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사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광수 씨

###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질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힘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

대표팀 주치의 김현철박사는 "우리선수들의 체력증진에는 파워프로그램이 큰 구실을 했지만 보양식도 큰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우리 선수들의 지구력이 우리와 비슷한 파워프로그램으로 훈련한 다른 유럽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대표팀 선수들은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차례식사때 오가피를 먹고 있으며, - 중략 - 도핑테스트와 무관한 자연식이다.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아일보 6월 20일 보도)

### 꼭 확인하십시오!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제재사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지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제재사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고있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0047